

아파트 공간규모의 적정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f Appropriateness of Space in Multi-Family Housing

양세화*
Yang, Sehwa

오찬옥**
Oh, Chanohk

김석태***
Kim, Suktae

Abstract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analyze the appropriateness of space in multi-family housing by examining the current conditions of space, space norms and deficits, satisfaction with and needs for the spaces of individual rooms. The data came from the survey with 412 households living in Haeundae New Town, Busan and were analyzed with descriptive statistics. The appropriateness of space were mainly investigated in terms of housing size, number of bedrooms, and number of bathrooms. In terms of current space conditions, the highest portion of the households live in apartments with 20~30s pyong, 3 bedrooms, and 2 bathrooms. It was found that the space norms included housing with 30~40s pyong, 3 bedrooms, and 2 bathrooms. Households in current study tended to have some space deficits, especially in housing size and number or bathrooms. In general, the satisfaction with the current space of individual rooms were generally low except living room and master bedroom. It was also found that the households were more likely to make the second biggest bedroom bigger than now. The stages of family life cycle has significant effects on needs for the spaces of several rooms, such as dining room, room2, and room3.

Keywords : Appropriateness of space, Space norms, Space deficits, Satisfaction, Needs

주요어 : 공간 규모의 적정성, 공간규범, 공간결함, 만족도, 요구

1. 서론

가구의 주거환경에 대한 평가는 다각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진다. 미시사회학적 관점에서 주거조절모델을 제시한 모리스와 윈터(Morris & Winter, 1978)에 따르면 가구의 주거환경 평가는 일반적으로 주택유형, 소유권, 공간, 질, 주거비, 근린환경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평가 결과 나타난 결함이 주거에 대한 불만족을 초래할 경우 이를 없애기 위해 이사나 개조 등의 주거조절을 한다.

주거환경 평가에 있어 주요 측면의 하나인 공간은 가구가 필요로 하는 주택의 규모나 침실 또는 욕실 등의 수에 의해 측정되며 가구의 주거에 대한 만족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의 하나로 이미 잘 알려져 있다(박정희, 1992). 공간규모의 적정성은 주거환경의 질을 나타내는 중요한 요소의 하나이며(박환용·김수암·서봉교, 1998) 흔히 1인당 주거 면적이나 가구당 사용 방수, 방당 사람 수 등으로 산출되는 객관적 수치인 주거 밀도에 의해 평가되며 이러한 기준은 최저주거수준의 설정

같은 정책 결정의 기초 자료로도 널리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공간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는 주거 밀도와 같은 절대적인 기준에 의해서만 이루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왜냐하면 공간에 대한 요구는 가구원 수나 가구의 구성방법, 가구의 사회경제적 배경, 가구의 주거 특성과 경험 등에 따라 달라지며 공간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가구의 평가는 심리적이자 공간에 대한 사회적 규범이나 가족 규범에 따라 다분히 문화적이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아파트 공간규모의 적정성을 거주 가구의 현 주거에서의 공간 상태, 공간규범과 공간결함, 그리고 이에 대한 만족도 및 요구 측면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간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위해 공간규범 및 관련 개념을 중심으로 선행연구를 고찰한다. 둘째, 현 주거와 희망 주거에서의 주거 면적과 침실 및 욕실 수를 통해 현 주거의 공간 상태와 공간규범 및 공간결함을 파악한다. 셋째, 현 주거의 실별 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만족도와 규모 조정에 대한 요구를 조사하고 가족생활주기 단계에 따른 차이를 분석한다.

본 연구는 공간규모의 적정성에 대해 객관적 수치가 아닌 거주자의 규범과 이에 근거하여 나타나는 주관적 평가를 통한 접근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공동주택의 단위주거 계획에 있어

본 연구는 2002년도 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KRF-2002-005-G00003)

*정회원(주저자), 울산대 주거환경학과 교수

**정회원, 인제대 디자인학부 교수, 유니버설디자인연구소

***정회원, 인제대 디자인학부 조교수, 디자인연구소

주거면적과 침실 및 욕실의 수, 주거 내 각 실별 규모의 배분 등의 결정에 필요한 수요자 측면의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본 연구를 위한 이론적 배경에서는 가구의 공간규모 적정성에 대한 의식이나 평가에 있어 중요 개념인 공간 규모 및 결합과 이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거만족도와 주거조절행동 등을 중심으로 선행연구를 정리하고자 한다.

Morris와 Winter(1978)는 공간규모이란 가구가 필요로 하는 주택의 규모나 침실 또는 실의 수를 결정하는 기준이라고 정의하였다. 공간규모는 주거의 다른 측면에 대한 규모와 마찬가지로 사회화 과정에서 형성되는 문화규모와 가족의 실제 상황에 따라 문화규모가 다소 완화된 가족규모 간의 절충에 기인한다.

한편 공간결합이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 내의 공간 상태와 공간규모간의 차이로 정의내릴 수 있다. 즉 현 주거의 공간 상태가 공간규모, 즉 가족이 생각하는 공간적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상태가 공간결합 상태이다. 국내외의 여러 선행연구(Morris & Winter, 1978; Khil, 1991; 박정희, 1992; 이연복 · 홍형욱, 1991 외 다수)들은 공간결합의 유형을 긍정적 결합, 적정상태, 부정적 결합의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긍정적 결합이란 현 주거가 가족의 공간규모에 비해 더 풍족한 공간을 가진 과잉상태의 결합을 의미하며, 적정상태는 현 공간상태가 규모를 충족시키는 경우로 이 두 가지 유형의 결합은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반면 부정적 결합은 현 주거의 공간상태가 규모에 못 미치는 부족상태의 결합을 말하는데 이 경우 주거에 대한 불만족과 함께 주거조절을 초래하는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처럼 공간결합의 발생이나 공간규모의 적정성 여부는 가구가 공간규모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대도시 중산층의 주거규모를 포괄적으로 분석한 이연복과 홍형욱(1991)은 침실 수에 대한 문화규모는 소유권에 대한 규모와 함께 문화적으로 통합된 기준으로 제시되는 성격이 강한 것으로 결론짓고 있다. 한편 박정희(1992)의 연구에서는 도시 가구의 3분의 2 이상이 3-4개의 방을 원하고 주택규모에 있어서는 가족 수에 의한 차이 없이 30-36평 정도의 규모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 사용방수에 대한 규모는 가족 수가 늘어남에 따라 함께 증가하였다. 한편 최윤정과 김민정(2003)은 자녀양육기 맞벌이 가구라는 특정 집단의 공간에 대한 요구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실질적인 단위평면 계획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들 가구는 공간에 대한 높은 요구를 가지고 있었으며 30평대의 방 3개 아파트를 가장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연구는 공간규모와 결합을 가구의 주거조절 맥락

에서 분석하였다. 한국 가구의 주거조절행동을 분석한 Khil(1991)의 연구에 따르면 응답자의 약 90%는 3-4개의 침실을 갖는 것이 공간규모이라고 답한데 반해 그들 중 약 70%는 부족상태의 공간결합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족상태의 공간결합은 주거에 대한 불만족을 거쳐 주거이동에 대한 열망을 간접적으로 초래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주거이동을 통한 침실수의 변화를 분석한 조재순(1992)의 연구에서는 조사 대상자의 84%가량이 이사를 통해 동일한 침실수를 유지하거나 침실수를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가장의 학력과 가계소득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으며 침실수의 변화는 주거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대도시 가족의 주거생활주기를 분석한 김대년과 홍형욱(1994)의 연구나 신도시 이주자의 주거수준과 주거만족도 변화를 분석한 윤복자와 박남희(1996)의 연구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공간규모의 적정성 문제는 객관적 수치 차원에서 접근하기 보다는 현 주거의 상태와 문화적으로 형성되는 규모와 결합, 이어지는 주거조절의 전체 맥락에서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 일환으로 본 연구는 실증자료를 통해 공간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분석을 시도해 보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및 절차

1. 자료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해 인제대학교 디자인 연구소가 아파트 주거환경의 다양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실시한 「아파트 주거환경에 대한 조사(2003)」의 원 자료를 분석하였다. 이 자료는 아파트 내·외부 제반 측면에 대한 거주자들의 포괄적인 평가 내용을 담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조사대상 가구의 일반사항, 생활 분석, 단위주호의 평면구성과 공간별 이용, 단지시설 및 외부 공간, 실내 마감재와 디자인 등에 대한 실태와 만족도, 요구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다.

조사대상은 부산의 해운대 신시가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주부이며 예비조사(2002. 12. 16-12. 31)를 거쳐 2003년 1월 15일부터 2월 15일까지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표집방법은 할당표집법을 이용하여 전용면적과 침실 수, 전면 실 배치 방식에 따라 유형화된 평면 별로 표본을 고르게 추출하였다. 자료 수집은 아파트 입주자 대표의 도움을 받아 훈련된 10인의 조사원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총 60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412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2. 변인측정과 분석

본 연구에서는 조사대상 가구의 일반사항, 현 주거와 희망 주거에서의 주거 면적과 침실 수와 욕실 수, 현 주거의 실별 규모에 대한 만족도, 그리고 실별 규모 조정에 대한 요구 문항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현 주거의 공간규모 적정성 분석에는 현 주거의 공간 상태, 공간규범과 공간결함을 포함하였다. 현 주거의 공간 상태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주거면적과 침실 및 욕실 수에 대한 응답을 이용하였으며 이와 함께 1인당 주거면적과 방당 사람 수에 따른 주거 밀도도 산출하였다. 공간규범은 가구가 희망하는 공간 상태에 대한 응답, 즉 가족규범 차원에서 파악하였다. 공간결함은 공간규범과 현 주거의 공간 상태 간의 차이를 산출하여 측정하였다. 산출된 값이 '마이너스'일 경우 규범에 비해 현 주거가 공간부족의 결함을 갖는 것으로, '0'일 경우는 결함이 없는 것으로, 그리고 '플러스'일 경우 현 주거가 공간과잉의 결함을 갖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한편 실별 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불만(1점)'에서 '매우 만족(5점)'의 5단계 등간 척도로, 그리고 실별 규모 조정에 대한 요구도 '줄임(1점)'에서 '넓힘(5점)'의 5단계 척도로 측정하였다. 아울러 현 주거에서 가장 넓기를 희망하는 공간을 순위를 통해 조사하였다. 자료는 SPSS Win ver.10을 이용하여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 등의 기술통계에 의해 분석하였다.

IV. 분석결과 및 논의

1. 조사대상 가구의 일반사항

<표 1>은 조사대상 가구의 일반적 특성을 나타낸다.

주부의 44.8%가 40대였으며 평균 연령은 42.61세였다. 가족생활주기는 초등교육기와 중고등교육기에 속하는 가구의 비율이 각각 28.7%와 26.4%로 나타나 조사대상 가구의 과반수가 자녀 학령기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수는 3-4인 가족이 76.2%를 차지하였으며 평균 가족 수는 3.85명이다. 주부의 학력은 전문대졸 이상의 대학교육을 받은 비율이 52.1%로 조사되었으며 75.4%가 전업주부였다. 조사대상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200-300만원 미만이 34.6%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주택소유형태는 약 86%가 자가였으며 현 아파트에서의 거주기간은 6년 이상 34.7%, 4-6년 미만이 26.1%로 조사대상 가구의 과반수가 4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현 주거의 공간규모 적정성

현 주거의 공간규모 적정성에 대한 분석을 위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공간 상태와 공간규범 및 공간결함을 조사하였다.

1) 현 주거의 공간상태

현 주거의 공간 상태는 주거면적과 침실 및 욕실 수, 1인당 주거면적과 방당 사람 수에 따른 주거 밀도를 통해 조사하였다(<표 2> 참조).

전용면적으로 살펴본 조사대상 가구의 현 주거 면적은 20평대가 44.4%, 30평대가 37.6%를 차지하여 전체 가구의 80% 이상이 2, 30평대의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0평대 이상의 중대형 평형 아파트에 거

표 1. 조사대상 가구의 일반사항 n=412*

구 분	빈도 (%)	
주부의 연령	30대 이하	156 (38.4)
	40대	182 (44.8)
	50대 이상	68 (16.7)
	계	406(100.0)
가족생활주기	미취학기	52 (13.2)
	초등교육기	113 (28.7)
	중고등교육기	104 (26.4)
	성인기이후	125 (31.7)
	계	394 (100.0)
가족수	2명 이하	30 (7.4)
	3-4명	311 (76.2)
	5명 이상	67 (16.4)
	계	408 (100.0)
주부의 학력	고졸 이하	189 (47.9)
	전문대졸	45 (11.2)
	대졸 이상	161 (40.9)
	계	395 (100.0)
주부의 취업유무	취업	90 (24.6)
	미취업	276 (75.4)
	계	366 (100.0)
월평균 소득	200만원 미만	49 (12.3)
	200-300만원 미만	138 (34.6)
	300-400만원 미만	101 (25.3)
	400만원 이상	111 (27.8)
	계	399 (100.0)
주택소유형태	자가(분양)	240 (59.4)
	자가(구매)	108 (26.7)
	임대	56 (13.7)
	계	404 (100.0)
거주기간	2년 미만	71 (18.5)
	2-4년 미만	79 (20.7)
	4-6년 미만	100 (26.1)
	6년 이상	133 (34.7)
	계	383 (100.0)

*무응답으로 인해 변수별 사례수와 일치하지 않음.

주하는 가구는 18%에 불과하였다¹⁾. 사용하고 있는 침실의 수는 평균 3.11개였으며, 3개가 57.3%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4개(26.2%), 2개(15.8%)의 순이었다. 이는 1997년 미국의 가구당 방수 5.4개나 1998년 일본의 4.8개(양세화·김정례, 2000)에 비하면 적은 편임을 알 수 있다. 욕실은 조사대상 가구의 55.6%가 2개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주거면적을 가족 수로 나누어 산출한 1인당 주거면적은 34.3%가 7~10평, 29.9%가 10평 이상의 분포를

1) 2000년 부산시 해운대구의 주택규모는 60 m² 미만이 33.5%, 60-90 m² 미만이 45.3%, 99 m² 이상이 21.2%의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부산통계연감, 2000).

표 2. 현 주거의 공간상태 n=412*

구 분		빈도 (%)
주거면적	20평대	183 (44.4)
	30평대	155 (37.6)
	40평대	25 (6.1)
	50평대 이상	49 (11.9)
	계	412 (100.0)
침실 수	1개	0 (0.0)
	2개	65 (15.8)
	3개	236 (57.3)
	4개	108 (26.2)
	5개	3 (0.7)
	계	412 (100.0)
욕실 수	1개	183 (44.4)
	2개	229 (55.6)
	계	412 (100.0)
1인당 주거면적	5평 미만	25 (6.1)
	5평-7평 미만	121 (29.7)
	7평-10평 미만	140 (34.3)
	10평 이상	122 (29.9)
	계	408 (100.0)
방당 사람 수	1인 미만	42 (10.3)
	1인	108 (26.5)
	1인 초과-2인 미만	209 (51.2)
	2인	37 (9.1)
	2인 초과	12 (2.9)
	계	408 (100.0)

*무응답으로 인해 변수별 사례수와 일치하지 않음.

보여 조사대상 가구의 약 3분의 2가 1인당 7평 이상의 주거공간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의 1인 최저 주거 기준 3.6평(건설교통부, 2004)에 비하면 거의 2배가량 되는 면적이다. 주관적 과밀을 느끼게 하는 강력한 변수의 하나인 방당 사람 수(Gove 외, 1979)에 있어서는 1인을 초과하는 가구가 63.2%였으며 2인 또는 2인을 초과하는 경우도 12%에 달하였다. 이는 미국의 1990년 1인 초과 가구의 비율 4.9%(양세화·김정례, 2000)와 비교하면 현저하게 높은 비율이다.

2) 공간규범과 공간결합

공간규범과 공간결합은 주거면적과 침실 수, 욕실 수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표 3> 참조).

① 주거면적

주거면적의 경우 20평대를 희망하는 가구는 겨우 5.6%에 불과하였으며 48.3%가 30평대, 31.5%가 40평대, 그리고 14.7%가 50평대 이상을 희망하여 40평대 이상을 희망하는 가구의 비율이 46.2%로 거의 절반에 달하였다. 이는 현 주거보다 훨씬 큰 주거를 규범으로 여기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으로, 이러한 사실은 <표 4>에 제시된 주거면적 결합의 분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조사대상의 59.3%는 11평 이상, 그리고 27.9%는 1평~10평 정도 주거면적이 규범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였고 현재의

표 3. 공간규범 n=412*

구 분		빈도 (%)
주거면적	20 평대	23 (5.6)
	30 평대	198 (48.3)
	40 평대	129 (31.5)
	50 평대 이상	60 (14.7)
	계	410 (100.0)
침실 수	1 개	26 (6.5)
	2 개	60 (15.0)
	3 개	254 (63.7)
	4 개	56 (14.0)
	5 개	3 (0.8)
	계	399 (100.0)
욕실 수	1 개	38 (9.6)
	2 개	354 (89.4)
	3 개	4 (1.0)
	계	396 (100.0)

*무응답으로 인해 변수별 사례수와 일치하지 않음.

표 4. 공간결합 n=412*

구 분		빈도 (%)
주거면적 결합	-11평 이상	242 (59.3)
	-1평~-10평	114 (27.9)
	0평	1 (0.2)
	1평~10평	38 (9.3)
	11평 이상	13 (3.2)
	계	408 (100.0)
침실 수 결합	-2개	2 (0.5)
	-1개	66 (16.6)
	0개	205 (51.7)
	1개	89 (22.4)
	2개	27 (6.8)
	3개 이상	8 (2.0)
계	397 (100.0)	
욕실 수 결합	-1개	149 (37.8)
	0개	239 (60.7)
	1개	6 (1.5)
	계	394 (100.0)

*무응답으로 인해 변수별 사례수와 일치하지 않음.

주거면적이 규범보다 넓다고 답한 경우는 12.7%에 불과하였다. 이는 조사대상의 90%가 현 주거를 협소하게 여기고 있음을 시사한다.

② 침실 수

한편 침실 수 규범에 대해서는 조사대상 가구의 63.7%가 3개를 희망한다고 답하였다. 흥미로운 것은 현재는 1개의 침실을 가진 가구가 하나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대상의 6.5%가 1개의 침실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재 4개의 침실을 가지고 있는 가구의 비율(26.2%)은 침실 수 규범에서는 14.0%로 절반 가까이 줄

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거 면적에 있어서는 현재보다 더욱 넓은 주거를 희망하면서도 침실 수에 있어서는 현재보다 줄이기를 희망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이러한 경향은 <표 4>의 침실 수에 대한 결함 분포에서도 잘 나타나는데 침실 수에 대한 결함이 하나도 없는 비율은 51.7%였으며 31.2%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거가 규범에 비해 1~3개의 침실을 더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규범에 비해 현 주거의 침실 수가 부족하다고 답한 비율은 17.1%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넓은 주거를 원하는 것보다 침실 수가 많은 주거를 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으로, 40평대 이상에서도 침실이 3개인 주거를 원하는 가구가 많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③ 욕실 수

욕실 수에 관한 규범은 2개라고 답한 비율이 전체 가구의 89.4%였으며 9.6%만이 1개라고 답하였다. 이는 현재 55.6%만이 2개의 욕실을 가지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외견상으로도 욕실 수의 부족이라는 결함을 예상할 수 있다. 실제로 결함을 산출한 결과 전체 가구의 60.7%는 결함이 없는 것으로, 37.8%는 1개의 욕실을 더 갖기를 희망하였다. 반면 규범보다 욕실이 초과하였다고 답한 비율은 전체 가구의 1.5%인 6가구였다.

3. 각 실 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만족도와 요구

1) 각 실 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만족도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각 실별 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만족도와 요구를 조사하고 보다 구체적인 파악을 위해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가족생활주기는 만자녀의 학령에 따라 미취학기, 초등교육기, 중고등교육기, 성인기이후의 4단계로 구분하였다. 가족생활주기는 가구원 수나 가구 구성 방법 등의 인구학적 특성은 물론 소득 같은 사회경제적 특성을 함축하기 때문에 가족생활 전반에 대한 예측에 있어 매우 중요한 변수의 하나이다. 주거에 관한 가족의 요구와 결핍, 평가, 의사결정 등 제반 측면에 대한 설명에 있어서도 예외가 아니다. 특히 공간규모의 적정성 문제는 가구원 수나 가구 구성 등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분석은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위해 유용하다.

<표 5>는 각 실 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만족도 분포를 나타낸다. 각 실별로 산출된 만족도 평균값은 0.77~3.33의 분포를 보였으며 거실(3.33)과 방1(3.23)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3점 이하의 낮은 점수를 보였다. 이는 거실과 제일 큰 방을 지목한 방1 외에는 대부분의 공간이 규모면에서 거주자에게 만족스럽지 못함을 시사한다. 특히 방3(2.27)이나 방4(0.77)와 같이 자녀 방이나 여분의 방으로 공급되는 제일 작은 방에 대한 만족도가 특히 낮았으며 아울러 부부 전용 욕실에 대해서도 만족도가 낮았다(1.53). 이 세 공간에 대해서는 과반수이상의 가구가 불만족한다고 답하였으며 특히 방4의 경우 조사대상 주부의 82.3%가 불만족 또는 매우 불만족이라고 답하였다.

표 5. 실별 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만족도 n=412*

항 목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평균 (S.D.)
		거실	빈도	3	53	170	
	%	(0.8)	(13.6)	(43.5)	(36.6)	(5.6)	
주방	빈도	20	108	167	86	9	2.89 (.89)
	%	(5.1)	(27.7)	(42.8)	(22.1)	(2.3)	
식사 공간	빈도	11	96	188	89	3	2.94 (.79)
	%	(2.8)	(24.8)	(48.6)	(23.0)	(0.7)	
가족공동 욕실	빈도	13	87	201	87	3	2.95 (.78)
	%	(3.3)	(22.3)	(51.4)	(22.3)	(0.8)	
방1	빈도	2	68	173	130	15	3.23 (.80)
	%	(0.5)	(17.5)	(44.6)	(33.5)	(3.9)	
방2	빈도	9	138	149	80	11	2.86 (.87)
	%	(2.3)	(35.7)	(38.5)	(20.7)	(2.8)	
방3	빈도	82	116	142	51	5	2.27 (1.29)
	%	(20.7)	(29.3)	(35.9)	(12.9)	(1.3)	
방4	빈도	302	32	46	22	4	0.77 (1.37)
	%	(74.4)	(7.9)	(11.3)	(5.4)	(1.0)	
부부전용 욕실	빈도	193	58	94	48	1	1.53 (1.56)
	%	(49.0)	(14.7)	(23.9)	(12.2)	(0.3)	

*무응답으로 인해 변수별 사례수와 일치하지 않음.

한편 가구의 가족생활주기와 각 실 공간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만족도 간의 상호관련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교차표 각 셀(cell)의 고른 빈도분포를 위하여 종속변인인 만족도의 범주는 기존의 5개(매우 불만족~매우 만족)에서 3개(만족, 보통, 불만족)로 재조정하여 실시하였다. 교차분석에 대한 χ^2 검증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가구의 각 실별 공간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만족도는 가족생활주기 단계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각 실의 규모조정 요구

<표 6>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각 실의 규모조정 요구에 대한 분석결과이다. 규모를 재조정한다면 현재의 규모보다 늘리고 싶은 공간과 줄여도 좋은 공간을 조사하였다. 전반적인 경향을 살펴보면 식사공간에 대해서는 전체 조사대상의 63%가 조정이 필요 없다고 답하고 있으며 방1(53.8%), 가족공동욕실(52.5%), 거실(51%)에 대해서도 과반수이상이 규모 조정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방4(10.5%), 부부 전용욕실(28.9%), 방3(34.5%)은 조정이 필요 없다고 답한 비율이 낮았다.

거실의 규모에 대해 조사대상의 45.2%가 넓히기를 희망하였다. 만족도 점수가 모든 실 중 가장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거실 확장에 대한 요구는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거실중심의 생활이 자리잡아감에 따라 나타나는 현상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주방은 50%의 가구가 지금보다 면적을 넓히고 싶다고 답해 방2와 함께 확대 조정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

표 6. 실별 규모 조정에 대한 요구 n=412*

항 목	출입	약간 줄 임	조정 불필요	약간 넓 힘	넓힘	
거실	빈도	2	12	185	95	69
	%	(0.6)	(3.3)	(51.0)	(26.2)	(19.0)
주방	빈도	2	6	175	124	59
	%	(0.5)	(1.6)	(47.8)	(33.9)	(16.1)
식사 공간	빈도	1	13	216	96	17
	%	(0.3)	(3.8)	(63.0)	(28.0)	(5.0)
가족공동 욕실	빈도	2	14	188	117	37
	%	(0.6)	(3.9)	(52.5)	(32.7)	(10.3)
방1	빈도	5	36	185	88	30
	%	(1.5)	(10.5)	(53.8)	(25.6)	(8.6)
방2	빈도	1	11	145	140	44
	%	(0.3)	(3.2)	(42.5)	(41.1)	(12.9)
방3	빈도	66	6	121	121	37
	%	(18.8)	(1.7)	(34.5)	(34.5)	(10.5)
방4	빈도	301	4	41	33	13
	%	(76.8)	(1.0)	(10.5)	(8.4)	(3.3)
부부전용 욕실	빈도	195	18	108	39	14
	%	(52.1)	(4.8)	(28.9)	(10.4)	(3.8)

*무응답으로 인해 변수별 사례수와 일치하지 않음.

았다. 이는 최근 주방 가전이 점차 대형화, 다양화, 빌트인화 해가면서 보다 넓은 주방에 대한 요구가 커지는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다른 공간에 비해 조정이 불필요하다고 답한 비율이 63%로 가장 높았던 식사공간은 조사대상 가구의 3분의 1정도인 33%가 확대를 요구하였다. 이는 부엌과 식사공간을 분리하고 가족 단란 및 접객 공간의 확보에 대한 요구가 확대되고 있다는 최근의 연구 결과(김미희·이유미, 2005)를 감안할 때 비교적 식사공간의 현재 규모가 이러한 요구를 잘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가족공동욕실에 대해서는 규모 확대를 희망하는 비율이 43%인 것으로 나타났다.

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만족도에 있어 거실 다음으로 높은 점수를 보였던 방1에 대해서는 비교적 낮은 비율인 34.2%의 가구가 규모 확대를 희망하였다. 반면 12%는 현재보다 줄여도 좋다고 답하여 다른 공간에 비해 축소 조정을 희망하는 경향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부부침실로 쓰이는 방1의 기능이 과거에 비해 부부만의 독립된 공간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커지고 이로 인해 가족 단란 행위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서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다.

방2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의 54%가 지금보다 면적을 늘리고 싶다고 답하여 확대 조정을 바라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흔히 많은 가정에서 자녀 방으로 쓰이는 방2는 일반적으로 3평 내외로 계획, 공급되고 있지만 침대 사용의 증가와 함께 자녀용 가구의 종류가 늘어나고 수납 물품이 더욱 많아지면서 현재의 규모가 협소하게 여

겨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방3은 비교적 높은 비율인 45.0%의 가구가 확장을 요구한 데 반해 축소를 요구하는 비율도 20.5%로 다소 높게 나타났다. 이는 과반수이상의 가구가 확장 요구를 보이면서 3.5%만이 축소 요구를 보였던 방2와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즉 일반적으로 자녀 방으로 쓰이는 방2에 비해 방3은 생활주기나 가족 특성에 따라 그 용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이에 따라 규모 조정 요구가 다르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규모 적정성에 있어 가장 낮은 만족도(<표 5>참조)를 보였던 방4는 예상대로 규모 조정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조사대상의 77.8%가 규모를 줄여주기를 희망하여 규모 축소 조정에 대한 요구가 가장 컸다. 일반적으로 대형 평형의 아파트에서 제공되는 방4의 축소에 대한 높은 요구는 3개 이하의 방을 희망하는 비율이 85.2%이던 앞서의 공간규범 결과(<표 3>참조)와 함께 생각해볼 때 규모의 축소라기보다는 방의 필요성 여부에 대한 문제 제기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부부 전용욕실 또한 규모 조정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56.9%의 가구가 이 공간을 축소하기를 희망하였다. 부부 전용욕실에 대해서는 2개의 욕실을 규범으로 제시한 것으로 보아 그 필요성은 인정하되 규모는 현재보다 줄이기를 희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특히 중대형 평형에서 부부 전용욕실이 점차 넓어지고 있는 추세와는 상반되는 결과이다.

한편 각 실의 규모조정에 대한 요구가 가구의 가족생활주기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교차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교차표 각 셀(cell) 빈도의 고른 분포를 위하여 종속변인인 요구도의 범주를 기존의 5개(줄임~넓힘)에서 3개(줄임, 조정 불필요, 넓힘)로 재조정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χ^2 검증 결과에 따르면 유의적인 차이는 주방, 방2, 방3에 대한 규모 조정 요구에서 나타났다(<표 7> 참조).

확대 조정에 대한 요구 비율이 높았던 주방은 특히 초·중·고교육기와 중고·고교육기에 속하는 가구들에게서 이같은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초·중·고교육기 가구의 62.9%, 중고·고교육기 가구의 56.7%가 주방을 넓히기를 희망한 반면, 미취학기나 성인기 이후 가구는 조정이 불필요하다고 답한 비율이 과반수 이상으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확대 조정에 대한 요구가 가장 많았던 방2는 특히 성인기 이후 가구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단계의 가구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초·중·고교육기 가구는 64.5%가 확대 조정을 요구하였으며, 중고·고교육기 가구도 거의 60%가 이러한 경향을 보였다. 이는 일반적으로 자녀 방으로 쓰이는 방2가 특히 학령기 자녀들을 위한 공간으로서 충분한 면적을 확보하고 있지 못함을 다시 한 번 입증하는 결과이다.

방3은 조사대상 가구의 3분의 2가 규모 조정을 요구하였던 공간으로서 확대(44.5%)와 축소(20.5%) 요구가 함께 나타났다. 미취학기부터 중고·고교육기까지는 축소

표 7. 가족생활주기별 각 실의 규모조정요구의 교차분석

		가족생활주기				전체	
		미취학	초등기	중고등	성인기		
주방	줄임	빈도	2	1	3	2	8
		%	(4.3)	(1.0)	(3.1)	(1.8)	(2.3)
	적당	빈도	26	35	39	70	170
		%	(56.5)	(36.1)	(40.2)	(61.9)	(48.2)
	넓힘	빈도	18	61	55	41	175
		%	(39.1)	(62.9)	(56.7)	(36.3)	(49.6)
	전체	빈도	46	97	97	113	353
		%	(100.0)	(100.0)	(100.0)	(100.0)	(100.0)
	χ^2 값		20.788**				
	방2	줄임	빈도	3	3	2	4
%			(7.5)	(3.2)	(2.2)	(3.6)	(3.6)
적당		빈도	18	30	34	59	141
		%	(45.0)	(32.3)	(38.2)	(53.2)	(42.3)
넓힘		빈도	19	60	53	48	180
		%	(47.5)	(64.5)	(59.6)	(43.2)	(54.1)
전체		빈도	40	93	89	111	333
		%	(100.0)	(100.0)	(100.0)	(100.0)	(100.0)
χ^2 값		12.999*					
방3		줄임	빈도	0	2	1	4
	%		(0.0)	(2.7)	(1.3)	(4.0)	(2.5)
	적당	빈도	13	26	23	55	117
		%	(48.1)	(35.6)	(30.3)	(54.5)	(42.2)
	넓힘	빈도	14	45	52	42	153
		%	(51.9)	(61.6)	(68.4)	(41.6)	(55.2)
	전체	빈도	27	73	76	101	277
		%	(100.0)	(100.0)	(100.0)	(100.0)	(100.0)
	χ^2 값		15.487*				

*p<.05, **p<.01

요구는 계속 줄어들지만 이와 반대로 확대 요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한편 성인기 이후의 가구는 과반수가 조정이 불필요하다고 답하긴 하였으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역시 확대를 요구하는 비율(39.4%)이 축소 요구 비율(15%)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이는 2인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의 경우 자녀 각각에게 적절한 규모의 독방을 제공하고자 할 경우 이 방을 협소하게 여기고 있어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다.

3) 가장 넓기를 희망하는 공간

끝으로 가장 넓기를 희망하는 공간을 욕실을 제외한 나머지 공간을 중심으로 알아보았다(<표 8> 참조). 거실은 조사대상의 85.1%가 1순위로 꼽아 모든 공간 중 가장 넓은 공간이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침실은 2순위에 43.4%의 가구가 답하였으며 주방도 2순위에서 가장 높은 비율(29.2%)을 보였다. 한편 자녀실1은 3순위(36.3%)에서, 그리고 자녀실2는 4순위(26.5%)에서 가장 높은 응답을 보여 자녀실은 거실, 부부침실, 주방 다음으로 고려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식사공간은 34.5%의 가구가 6순위, 24.4%가 5순위라고 답하였다.

표 8. 가장 넓기를 희망하는 공간*

항 목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6순위	계	
거실	빈도	337	27	10	17	2	3	396
	%	(85.1)	(6.8)	(2.5)	(4.3)	(0.5)	(0.8)	(100.0)
부부침실	빈도	34	170	105	56	19	8	392
	%	(8.7)	(43.4)	(26.8)	(14.3)	(4.8)	(2.0)	(100.0)
주방	빈도	14	114	89	78	81	14	390
	%	(3.6)	(29.2)	(22.8)	(20.0)	(20.8)	(3.6)	(100.0)
자녀실1	빈도	23	86	143	100	42	0	394
	%	(5.8)	(21.8)	(36.3)	(25.4)	(10.7)	(0.0)	(100.0)
자녀실2	빈도	6	43	89	96	78	50	362
	%	(1.7)	(11.9)	(24.6)	(26.5)	(21.5)	(13.8)	(100.0)
식사공간	빈도	5	35	44	63	87	123	357
	%	(1.4)	(9.8)	(12.3)	(17.6)	(24.4)	(34.5)	(100.0)

*무응답으로 인해 변수별 사례수와 일치하지 않음.

거실은 여전히 주택 내 가장 넓은 공간이어야 한다는 데 대하여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으며 거실 다음으로 부부침실이 넓어야 한다는 생각도 아직까지는 변화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주방과 자녀실의 순위에 대한 응답 분포는 비교적 분산되어 있어 거실이나 부부침실에 비해 그 비중이 가구의 생활주기에 따라 달라지는 가족 상황에 의해 다소 유동적임을 보여준다. 전체 응답자의 과반수가 5, 6번째 순위라고 답한 식사공간은 다른 공간에 비해 규모 측면에서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부산의 해운대 신시가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412가구를 대상으로 아파트 공간규모의 적정성을 현 주거에서의 공간 상태, 공간규범과 공간결합, 그리고 이에 대한 만족도 및 요구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대한 요약 및 이에 따른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 가구의 80%이상은 2, 30평대의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18%는 40평대 이상의 중대형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다. 침실은 3개, 욕실은 2개를 사용하는 가구가 과반수이상의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조사대상 가구의 1인당 주거면적은 약 3분의 2가 7평 이상의 주거공간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방당 사람 수는 1인을 초과하는 경우가 63.1%, 2인을 초과하는 경우도 12%에 달하였다. 면적이나 방수 등을 통한 현 주거의 물리적 공간 상태는 대체적으로 양호한 편이지만 미국이나 일본의 수준에는 아직까지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둘째, 공간에 대한 희망사항을 통해 조사한 조사대상 가구의 공간규범을 살펴보면 전체의 48.3%는 30평대를, 42.2%는 40평대 이상의 주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침실 수에 있어서는 전체의 3분의 2에 달하는 63.7%가 3개를, 욕실 수는 89.4%가 2개를 희망한다고 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조사대상 가구들이 침실 수를 제외한

주거면적의 협소함과 욕실 수의 부족을 겪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는 비록 현 주거의 공간 상태가 객관적인 기준에서는 양호한 편일지라도 거주자들이 자신들의 가족 상황에서 설정한 기준, 즉 공간규범이 높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연유한 결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셋째, 주거 내 각 실별 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만족도는 거실과 부부침실로 흔히 사용되는 방1을 제외하고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녀 방이나 여분의 방으로 쓰이는 작은 방과 부부 전용욕실에 대해서는 특히 만족도가 낮았으며 단 가족생활주기 단계에 따른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넷째, 식사 공간, 거실, 가족공동욕실, 방1 같은 주요 실들의 규모는 전반적으로 적정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따라서 이들 공간에 대한 규모 조정 요구는 그리 많지 않았다. 주방과 자녀 방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방2, 방3에 대한 규모 조정 요구는 가족생활주기 단계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주방에 대한 확대 요구는 특히 학령기 자녀를 둔 가구들에게서 많이 나타났다. 방2와 방3에 대해서는 중고등교육기까지는 확대 조정 요구가 가장 많이 나타나지만 성인기 이후에 접어들면 이러한 요구는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자녀 방으로 흔히 쓰이는 방2와 방3의 규모가 학령기 자녀의 요구를 수용하기에는 충분치 못함을 시사한다. 방4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축소요구가 압도적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약 85%에 달하는 가구가 3개 이하의 방을 희망하고 있었기 때문에 규모 축소보다는 이 방의 존재 여부를 재고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부부 전용욕실도 방4와 마찬가지로 규모 축소에 대한 요구가 훨씬 높았다.

거실이 가장 넓어야 한다는 생각은 압도적이었으며 거실 다음으로 부부침실이 넓어야 한다는 데 대한 지지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방과 자녀 방이 넓어야 한다는 생각은 가구의 생활주기나 생활양식 등에 따라 다소 유동적이었다. 따라서 부부침실을 제외한 다른 방들은 가변형 벽체로 시공하거나 베란다 확장을 통한 필요 면적 확보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등의 건설업체의 배려가 필요하다. 한편 최근 식사공간의 기능이 가족단란이나 접

객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알려져 있지만 아직까지 식사공간이 규모 면에서 부각되기를 바라는 경향은 나타나지 않았다.

참 고 문 헌

1. 고영희(1990), 중산층의 주거밀도와 과밀특성. 대한건축학회논문집, 6(2).
2. 건설교통부(2004), 서민 주거복지 확대 방안.
3. 김대년·홍형욱(1994), 대도시 가족의 주거생활 주기유형 분석.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10권 9호, 45-56.
4. 김미희·이유미(2005), 한국형 오픈하우스 시스템 개발을 위한 우리나라의 주거생활 행태에 관한 연구(I). 한국주거학회 논문집, 16권 2호, 91-98.
5. 김태진·박환용(2001), 주거만족도 분석을 통한 공동주택의 적정개발밀도 연구.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01 추계학술발표논문집.
6. 박정희(1993), 도시주거계층 연구: 분석모형의 탐색.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7. 윤복자·박남희(1996), 신도시로 이주한 거주자의 주거수준과 주거만족도 변화 분석. 한국주거학회지, 7권 1호, 1-13.
8. 양세화·김정례(2000), 한국, 미국, 일본의 주거관련 통계 분석. 생활과학논문집, 1권 1호, 1-11.
9. 이경희·윤정숙·홍형욱(1997), 주거학개설. 서울: 문운당.
10. 이연복·홍형욱(1991), 대도시 중산층의 주거규범에 관한 연구. 한국주거학회지, 2권 1호, 13-34.
11. 조재순(1992), 주거이동을 통한 가족의 주거환경 변화 조정. 한국주거학회지, 3권 1호, 1-19.
12. 최윤정·김민정(2003), 자녀양육기 맞벌이 가구를 위한 아파트 단위평면 계획연구. 한국주거학회 논문집, 14권 6호, 23-32.
13. 홍형욱(1994), 한국 가족의 주거조절양상. 한국주거학회지, 5권 2호, 1-14.
14. Morris, E. W. & Winter, M. (1978), Housing, Family, and Society. New York: John Wiley & Sons.
15. Khil, S. (1991), A comparative study of housing adjustment among Korean, Mexican and American households. Unpublished Ph. D dissertation. Iowa State University, Ames, IA.

(接受: 2006. 1. 20)